

# ‘등번호 30’ 메시



# ‘파리 시대’ 연다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랑스에 선 리오넬 메시. <PSG 홈페이지 캡처>

##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입단 네이마르·음바페와 삼각편대 목표는 구단 첫 챔스 우승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34)가 프랑스 최강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1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와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2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메시의 등번호는 30번이다.

이로써 스페인 FC바르셀로나 한 팀에서만 유소년 시절부터 21년, 프로로 17시즌을 뛴 메시는, 처음으로 다른 클럽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메시는 “파리에서 빨리 내 축구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하고 싶었다”면서 “PSG와 파리 팬들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한다.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치를 홈 경기에 빨리 출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세르 알 켈라이피 PSG 회장은 “메시가 우리 클럽을 선택했다고 알게 돼 기쁘다”면서 “메시와 대단한 코치진이 전세계 팬들을 위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G가 메시와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역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이다. PSG는 카타르 왕족 자본인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2011년 인수해 전문화된 투자금을 쏟아부은 덕에 프랑스 내에서 압도적인 강팀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등 여러 슈퍼스타를 보유하고도 UCL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2019-2020시즌 처음으로 UCL 결승에 진출했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PSG로서는 UCL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메시를 선택한 셈이다. PSG의 유럽 정상을 향한 갈망은,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 계속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11일 프랑스 파르크 데 프랑스 경기장에서 리오넬 메시의 입단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메시의 바람과 일치했다. 메시는 “클럽의 비전과 나의 야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한때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PSG 사령탑에 앉아 있다.

지난 시즌 UCL에서 준결승 탈락한 데 이어 리그 4연패도 불발돼 가시방석에 앉은 포체티노 감독에게 메시 영입은 기회이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정규리그에서만 474골, 공식전 672골을 넣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정규리그 10회, 국왕컵 7회, UCL 4회 등 수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역대 최다인 6회 수상했다.

이런 메시가 바르셀로나 ‘원 클럽 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많은 팬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다.

올해 6월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된 메시는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바르셀로나로서는 고액연봉자인 메시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메시가 연봉 절반 삭감에 동의했지만, 바르셀로나는 결국 지난 5일 재계약 포기를 선언했고, 메시는 8일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친정 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 KIA, 임기영·박찬호 올림픽 휴식기가 ‘보약’

임기영, 후반기 첫 선발승  
“더운날 야수들 위해 빠른 승부”  
박찬호, 한화전 2타점 결승타  
“체력훈련 효과, 느낌이 좋다”



후반기 ‘첫 승 주인공’ 임기영과 박찬호에게 올림픽 휴식기가 ‘보약’이 됐다.

KIA 타이거즈는 10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1 승리를 거두면서 후반기를 승리로 열었다. 선발 임기영이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초반 싸움을 이끌어줬고 박찬호가 1-1로 맞선 6회 2사 2-3루에서 2타점 결승타를 날려줬다.

‘브룩스 약재’가 있었던 만큼 KIA에는 중요한 경기였다. 특히 임기영은 10일 선발 예정이었던 브룩스가 이탈하면서 하루 앞당겨 마운드에 오르기도 했다.

기본 좋은 후반기를 연 두 사람에게는 휴식기가 호재가 됐다.

유독 여름에 약했던 두 사람이다.

지난 시즌에도 임기영은 6월 4경기에서 2.01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기록했지만 7월 평균자책점이 5.85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8월은 7.1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3패만 기록했다.

박찬호도 7-8월에 고전했다. 거렬한 활약으로 주전 자리를 잡았던 2019시즌에도 3-4월 19경기에서 0.350을 찍었던 타율이 7월에는 0.258, 8월에는 0.190으로 떨어졌다. 체력 부담이 많은 유격수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 더위가 찾아오면 페이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휴식기 동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후반기 원동력을 마련했다.

임기영은 “날씨가 더운 7-8월에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휴식기간도 있었고,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았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다”면서도 “나는 덜 더워도 뒤에 야수들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빨리 승부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휴식기 기간 밸런스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임기영은 위기의 1회를 넘긴 뒤 빠르게 감을 잡으면서 2-3회를 삼자범퇴로 막는 등 선발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11일 “좋았다. 리그 중단 전 모습 그대로 이어갔다. (등판 날짜가 바뀌면서) 이번 주 두 번 던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것이어서 어제 그 부분이 걱정됐었는데 불펜도 좋은 모습대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임기영의 첫 등판을 평가했다.

후반기 첫 결승타 주인공이 된 박찬호도 휴식기 기간 힘을 채웠다.

박찬호는 “오랜만에 경기해서 좋았다. 결승타를 기록해서 더 좋았다”며 “풀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이 항상 문제였기에 체력적인 부분에 가장 신경 썼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특히 열심히 했다. 첫 경기이지만 느낌이 좋다. 체력 훈련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다. 루틴을 잘 지키면서 페이스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몸을 잘 만든 박찬호에게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 후반기 성적을 바꾸는 전력이 될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 박찬호가 많은 연습 시간을 갖고, 코치들과도 이야기 많이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상황에 맞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고, 시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어제 중요한 순간에 결승타 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다음 타석에서는 만루였는데 좋은 타격을 보여주지 못했다.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실행해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휴식기가 반가웠던 두 선수와 달리 김호령은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7월 무시무시한 타격감을 과시했던 김호령은 첫 경기 세 타석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래도 4번째 타석에서 나온 행운의 안타로 타점을 올리는 등 성과는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휴식기 동안 루틴대로 리듬감을 살리는 게 중요했다. 갑자기 휴식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쉽 수 없다. 타이밍이 조금은 맞지 않았다. 게임을 뛰면서 리듬감을 살아날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이 11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시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공의 시구 ... 안산 “너무 떨려 두 번은 못하겠어요”

### 양궁 ‘강심장’ 떨리는 마운드 “KIA 이의리 선수의 팬이에요”

“너무 떨려서 두 번은 못하겠어요.”

숏오프 끝에 양궁 3관왕에 등극한 ‘강심장’ 안산에게도 가슴 떨리는 시구였다. 우리나라 하계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에 빛나는 양궁 안산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올랐다.

안산은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한화 경기 시구자로 야구장을 찾았다.

꼭 집어 이의리를 시구 지도자로 요청했던 안산은 20분 정도 ‘특급 과외’를 받은 뒤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다.

안산은 “시즌 초반에 야구 챙겨보다가 대표팀에 선발돼서 야구 볼 기회가 없었다. 이의리가 신인

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며 “팬이어서 (시구 연습할 때) 너무 떨렸다”고 말했다.

또 “생각보다 마운드 거리가 먼 것 같았다. 야구 선수들이 긴장 많이 될 것 같다”며 “양궁할 때보다 더 떨렸다. 연습할 때는 잘 던진 것 같았는데 잘못 던진 것 같다. 두 번은 못 할 것 같다”고 웃었다.

“두 번은 못 하겠다”고 고개는 저었지만 KIA의 ‘가을잔치’가 펼쳐지면 다시 공을 던질 준비는 되어 있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침착하게 승부 했던 안산에게도 야구장은 특별한 무대였고, 팬들에게는 안산이 특별한 손님이었다.

이날 안산을 보기 위해 많은 팬이 야구장을 찾았고 뜨거운 함성으로 ‘양궁 3관왕’을 반겼다.

안산은 팬들의 바람을 담아 양궁협회장이자

KIA 타이거즈 구단주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메시지도 남겼다.

회장이 양궁협회에 잘 해주신다”며 “구단주님 양궁이랑 야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KIA 많이 신경 써주세요”라고 말해 KIA 관계자들을 웃게 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가볍다.

안산은 “뿌듯하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기쁜 마음이 크다. 이번 대회에서 성취감이 남다른 것 같다. 올림픽 끝나고 많은 분이 알아보시는 게 가장 다르다. 최대한 즐겁게 대해드리고 있다”며 “9월 중순에 세계 선수권대회 있어서 바로 입춘해야 한다. 다 끝나고 쉬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